



따뜻한 사람 · 아름다운 세상

나누는 기쁨 알면 행복해 집니다



무료급식소 백련자비원 개원



3월9일 열린 무료급식소 백련자비원 헌선식 모습.

설산 스님, 평생원력 23년만에 이뤄 이만홍, 이영숙 부부 장소 무상 제공 적십자 30여 자원봉사자 후원 등록

“할머니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3월 9일 개원한 무료급식소 백련자비원에 찾아온 100여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사)21세기 한국사회봉사회 이사장 설산 스님(홍은동 백련사)이 식탁을 돌며 인사하기에 바쁘다.
스님은 첫날임에도 찾아온 할머니들과 급식소가 꼭 채워지자 직접 식판을 들고 봉사자들의 바쁜 일손을 돕는다.

“매일 오셔서 식사를 하시라”는 말을 곁들이며.
이날 서대문구 홍은3동 만영빌딩 지하1층에 개원한 무료급식소 백련자비원은 1981년부터 자원봉사단체인 한국사회봉사회를 이끌어온 설산 스님의 평생원력에 따라 만들어졌다. 종교공헌 등에서 무료급식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스님의 보금자리가 23년만에 생긴 것.



설산스님이 할머니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있다.

40평의 급식장소는 그동안 설산스님의 무료급식활동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로 곁에서 함께했던 만영빌딩 소유주인 이만홍(60) 이영숙(56) 부부부자가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영숙 보살(송주 백화사 신도)은 “설산 스님의 봉사회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무료급식장소가 필요함을 깨닫고, 제공하게 된 것”이라며 “스님께서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만홍 이영숙 보살은 개원 첫날 백미 10여가마도 보시

했다.
또 기쁜 일이 이어졌다. 무료급식소 개원 소식을 접한 적십자사 서대문지회 30여명의 봉사자들이 이날 찾아와 자원봉사 후원자로 등록했다. 봉사자들은 매일 5명씩 돌아가며 급식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무료급식소 백련자비원은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 300여명에게 월요일-금요일 매일 11시 30부터 12시 30분까지 무료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설산 스님은 “23년의 봉사활동은 베푸는 방법을 모르고,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장을 마련해 주는데 의미가 있었다”며 “우리 주변에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련자비원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찾는다. 문의 02(303)-0024

글·사진=김원우 기자

김용순 할머니 심장병, 관절염 투병중 정부보조금 약값·월세 빠듯

슬하에 자녀와 형제자매 없이 혼자 사는 할머니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서울 성북동에서 사는 김용순 할머니(88·사진)는 현재 밭고의 지할 피복이 없이 고혈압과 관절염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 할머니는 6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남동생 집에서 같이 생활했다. 하지만 최근 남동생마저 사망하자 김 할머니는 월 15만원 월세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인근 보건사에서 허드렛일을 도우면서 신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요즘 들어서는 심장병이 도져 약값 마련에도 빠듯하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93-21-0468-736(예금주 김용순), (02)921-4887



김철우 기자

급성간부전증 박원구담기 성금 총 7433만원 박원구담기 불자모임·불교기자협 모금운동



급성간부전증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대구불교방송 직원 박원구담기 성금이 총 7천433만원으로 집계됐다.
모금운동을 전개한 한국불교기자협회가 529만원의 성금을 모았으며, 박원구담기불자모임의 통장에 6천199만원이 입금됐다. 또 은혜사등 각 분발사 스님들을 비롯 사부대중들이 705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한편 박원구씨(사진 왼쪽)는 현재 간이식 수술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장기를 이식해준 부인 홍안순씨(사진 가운데)와 사촌동생 박성구씨(사진 오른쪽)도 건강상 상태.

남동우 기자



“엄마 아빠, 원송이에게 용돈 줄래요”

부산 ‘반여3동 어린이집’ 나눔 저금통 330개 전달

9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어린이집(원장 임오 스님)’의 김순현 선생님은 <착한 반> 아이들에게 원송이저금통을 나눠줬다.(사진)
원송이저금통을 받아든 <착한 반> 아이들 27명에게선 어떻게 원송이저금통의 배를 불릴 것인지에 대한 무궁한 방법들이 쏟아져 나왔다. 7세반인 ‘착한 반’ 아이들에게서 제법 어른스러운 약속과 다짐들이 이어졌다.
먼저 소연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아

어린이 27명과 교사와 직원 22명 전원이 원송이저금통 채우기에 참여했다. ‘착한 반’을 비롯한 ‘재물반’ ‘사랑반’ ‘아름반’ 등 총 10개 반의 아이들이 원송이저금통에 고사리 손으로 동전을 넣으며 나누는 기쁨을 배워가게 된 것이다.
어린이외에도 불자가게 등에 나눠주겠다며 총 330개의 저금통을 신청한 임오 스님은 “어릴 때부터 나눔을 배우는 습관을 들이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 좋은 벗 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찬불동요 테이프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들이 한 번 한 번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이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자가 될 것입니다.

-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구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나눔의 손잡기 동참

인천 수미정사 인천시 문학동 수미정사(주 지 중연)는 나눔의 저금통 100개와 스티커 200장을 신청했다. 중연 스님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살아가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신도들과 나누는 마음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척 조개사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조개사 주지 해타 스님은 “나눔은 불교의 가장 적극적인 실천방법”이라며 “신도들과 더불어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동참했다. 조개사는 저금통 50개와 스티커 100장을 요청했다.
청주 광덕사 충북 청주시 용담동 광덕사(주 지 일봉)가 저금통 20개와 스티커 50장을 신청했다.
해성스님 경기도 성남시 태평4동에서 해성 스님이 저금통 5개와 스티커 10장을 요청했다.

도외출결요

장기 기증합니다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권남후 보살이 “생명이 위독한 분에게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권 보살은 “남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건강한 몸을 보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청은 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소년소녀가장 결연신청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나병희 보살이 소년소녀가장 후원결연을 신청했다. 나 보살은 “매달 정기적으로 소년소녀가장에게 후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신청은 buddhanews.com.

도외주체요

1:1 결연후원자를 찾습니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및 영세 가정 총 300세대를 돕는 ‘1:1 결연후원자’를 찾는다. 후원계좌 : 부산은행 083-01-033926-6 (예금주-용호종합사회복지관). (051)628-6737-9
치료교육 이용자 모집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지원)은 지역사회장애인의 교육 및 재활을 위해 조기교육, 심리치료, 물리치료(성인&소아), 언어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모집한다. (054)633-6415